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②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2015. 6. 8 | 민달팽이유니온 | minsnaion@gmail.com

복잡하고 다양화된 주거문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고, 민간의 새로운 시도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사회주택에 대한 의제 역시 민간에 의해 주도되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의 협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활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과 제도가 적절히 조화되는 민관협업의 모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5월 14일~16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세종대학교, 오사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거 관련 학자와 공무원,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주거문제를 발표하고,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 청년과 사회주택을 키워드로 본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슈진단은 총 2회 연재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권 보장과 한국사회의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 연구, 캠페인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달팽이집을 공급해 새로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자 주)

동아시아 주거문제의 공통적인 양상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다양한 주거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저소득 가구, 철거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문제와 더불어 청년계층과 같이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새롭게 주거문제의 당사자로 대두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과거 주택부족으로 인해 물리적인 주택의 공급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였다면 현재는 노후주택과 빈 집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수요자의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주거 정책의 수립, 주거 문화와 환경의 개선 등으로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누구인가? 동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일본에 이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지역의 성공은 눈부신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철거민 문제가 발생하였고, 자생적 주거 공동체는 도시 개발을 통해 파괴되었다. 고도성장시기가 끝나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부각되지 않았던 청년계층과 같은 새로운 주거문제의 당사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파괴된 이들은 거주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공의 역할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현재 부재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림1. 홍콩의 지역별 계층화와 도시 과밀화(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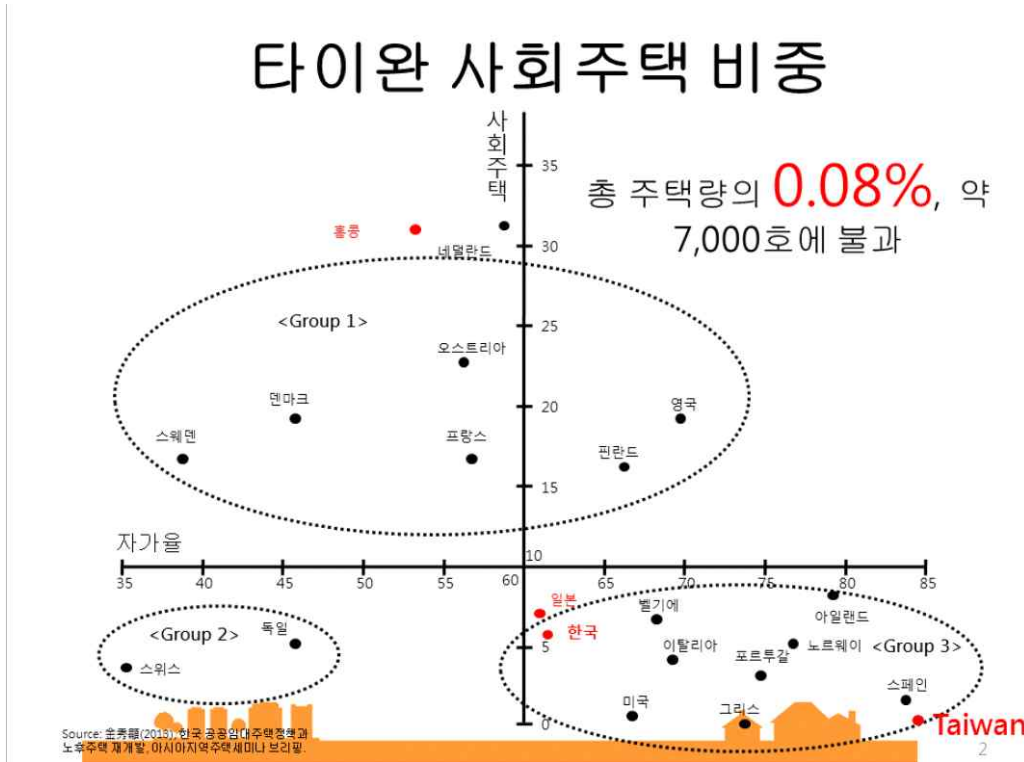
도시지역은 다양한 양상의 주거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는 자연스럽게 비도시지역보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을 지닌다. 즉, 도시지역의 주거문제는 공공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세심하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아시아 개발 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투기적 도시화(Speculative Urbanisation)’에 따라 도시 공간은 이익 추구를 위한 개발 욕망의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자본의 투기로 인한 도시 재개발은 도시 과밀화와 기존 거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며, 필연적으로 이주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도시문제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주거문제에 있어, 공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동아시아 주요국가의 주거정책은 주택 매매를 통한 자가 촉진정책이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주거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켰다. 주거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이제 5%를 갖



은 수준이며, 이제 논의가 시작된 대만의 경우 0.08%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림2. 대만의 사회주택 비율(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임대주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를 통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가구·노인·노숙자·청년 등 다양한 주거복지수요계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정책 역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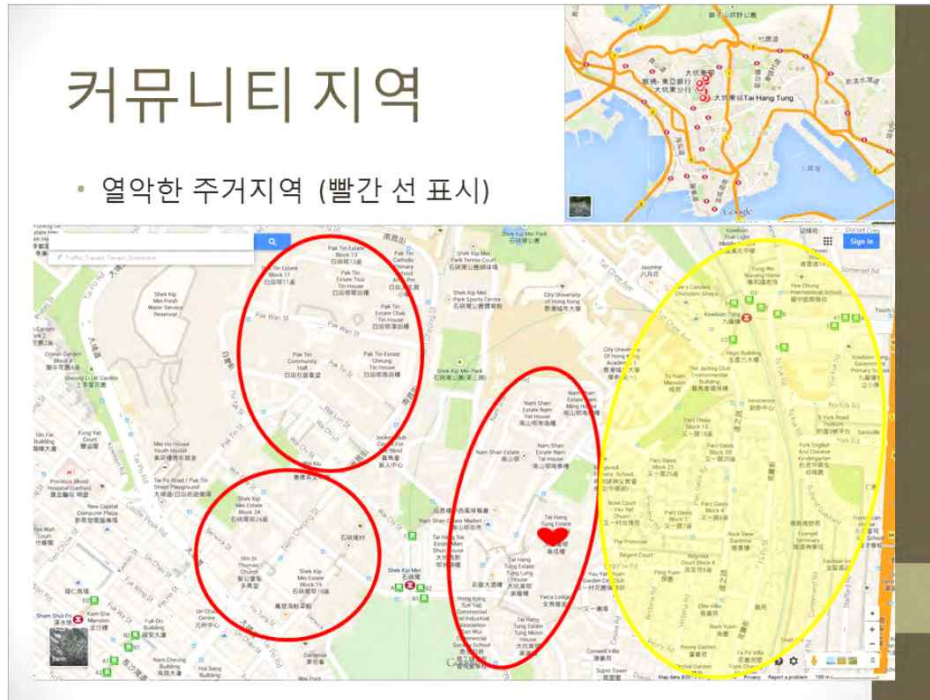
동아시아 지역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사례

경제개발시기,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및 도시들은 주거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였고, 상당한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는 다양화 되는 주거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한 사회가 가진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공공 부문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 시기 공공부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가별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홍콩 삼슈이포 커뮤니티 협회(SSPCA, Sham Shui Po Community Association)의 지역활동 사례

그림3. 삼슈이포의 열악 주거지역(주거복지컨퍼런스 발표자료)



홍콩 삼슈이포 커뮤니티 협회(SSPCA)는 홍콩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며 고밀도 도시화의 부작용을 겪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주거복지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전후 시기에 삼슈이포 지역의 위생, 치안, 수도관 보수 등을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시작으로 70년대 기존 NGO단체들의 도움으로 공식적인 단체로 탄생하게 되었다.

삼슈이포 커뮤니티 협회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협회의 대응도 달라졌다. 1970년대에는 소득양극화로 인한 임대료 및 퇴거 문제가 협회의 주요 활동이었다. 1980~90년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삼슈이포 지역의 주요 공장들이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구조적인 실업문제가 발생하던 시기에는 실업자들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단체의 활동 의제가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삼슈이포 커뮤니티 협회는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인임을 인지하고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변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협회는 문제의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협회를 조직해 나가고 회원연석 회의도 가지게 되었다.



그림4. 삼슈이포 커뮤니티 협회(SSPCA) 조직도(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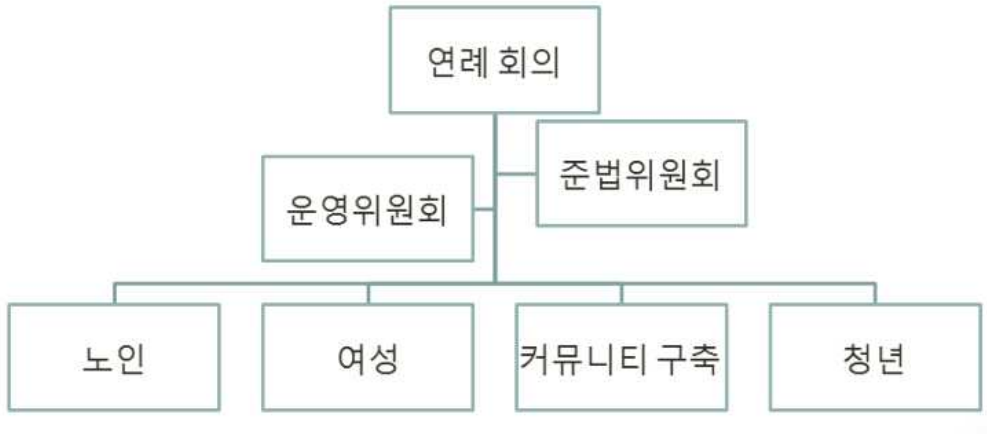


그림5. 삼슈이포 커뮤니티 협회(SSPCA)의 활동(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삼슈이포 커뮤니티 협회의 인력은 대부분 인턴, 지역 주민,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등 사회봉사자로 이루어져 있다. 청년층은 단체에서 활동가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와 함께 노인을 위한 무료의료상담, 이발 서비스, 정기적 만남, 여성 심리상담과 커뮤니티 지원 등 지역사회 지원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지역 내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NGO단체와 연합하고, 지역 정부의 공무원, 홍콩 주택청, 부동산 관리회사 등 다양한 주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에 힘쓰고 있다.

최근 삼슈이포 지역의 이슈는 임대료와 공공임대주택 문제이다. 약 10년 전 삼슈이포 커뮤니티 협회는 다른 NGO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홍콩 주택청에 정책 제안을 통해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애주세요.



공공주택임대료는 소득대비 10%가 넘으면 안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임대료는 유지되었지만 소득이 떨어져 임대료가 소득대비 10%를 넘기는 일이 발생하였고, 소송사건으로 이어졌다. 2010년에는 주택청 소유의 자산을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매각하려 했으나, 세입자들과의 연대 활동으로 현재는 1년이 연기되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이 가장 절실한 상태이다.

그림6. 정책 건의 활동(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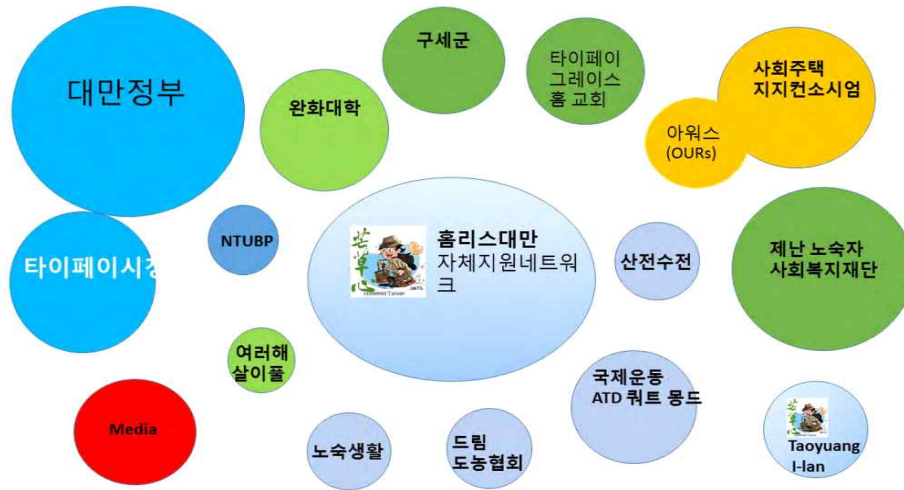
삼슈이포 커뮤니티 협회에서 현재 집중하고 이슈는 홍콩 주택청이나 정부, 민간 측에서 관리하지 않아 노후·낙후된 사각지대의 재개발 계획과 이주민들의 주거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해서 바뀌는 복잡한 정치지형 속에서 단체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환경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 대만 홈리스 자선협회(Homless Taiwan)의 홈리스 지원 사업

10년 동안 홈리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빈곤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해 온 대만의 홈리스 자선협회는 홈리스들이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의 노숙생활이 반복된다는 것’ 이라고 지적한다. 그러한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단체 활동의 목표이다. 전에는 동아시아 포괄적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해외에서 직접 홈리스를 체험하고 좋은 사례를 가져와 활동에 적용하는 등의 일을 했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홈리스 자선협회는 기존과는 다른 창의적 부분을 사업에 접목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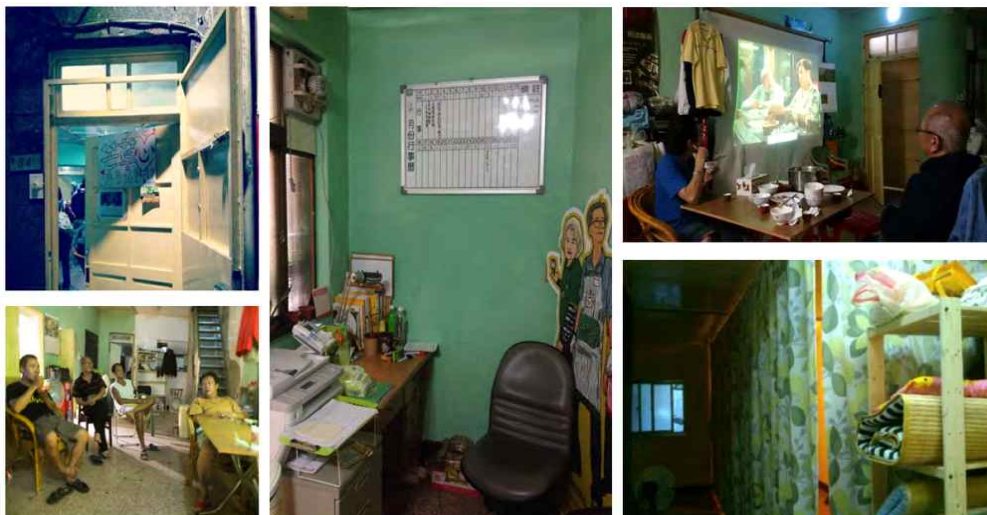


그림7. 대만 홈리스 자선협회 네트워크 관계도(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우선 홈리스 자선협회는 홈리스에게 임시 쉼터(Shelter) 제공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8~1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삼루수'가 이와 같은 쉼터 중 하나로, 1층에는 컴퓨터와 작은 주방 등이 있는 공용 공간을 갖추고 있다. 작년에는 두 개의 쉼터를 늘려 현재 5개의 쉼터를 운영 중이며 약 35~40명의 노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쉼터는 소규모로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림8. 수이 지원 센터의 모습(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으로는 홈리스들의 길거리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길거리 가이드를 진행하거나 목공 기술을 이용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홈리스들이 지역사회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9. 숙사 지역 가이드 프로그램(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 자료)



전술한 바와 같이 홈리스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홈리스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쉼터를 벗어난 후에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다시 홈리스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쉼터에서 독립한 15명의 과거 홈리스들을 추적하여 현재 상황과 주거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홈리스 협회의 활동으로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 내 임대주택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지원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 지역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만 임대시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 3일본 NPO입주서포트센터 미야기의 세이프티 아파트(Safety-Apartment)사업

일본의 미야기 주거지역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인, 전과자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NPO입주서포트센터의 세이프티 아파트가 있다. NPO입주서포트센터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중개역할을 하면서 일반적인 입



주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본은 집을 구하기에 앞서 임차인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임대계약을 맺기가 어렵다. 이러한 평가를 통한 입주자 수용은 도시로 이주해 온 일정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들, 장애인, 전과자, 긴급하게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입주서포트센터는 2002년부터 일반 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상담자의 정보를 받아 중개업자와 집주인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시작했다.

그림10. 지원센터 사업도(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지원센터는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뿐 아니라 NPO 법인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고령자, 가정 내 폭력 피해자와 같은 대상들에게 ‘세이프티 아파트’를 제공하였다. 현재 세이프티 아파트는 장애인, 고령자,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일반 아파트 등의 중개업자의 임대계약기준에 맞지 않지만 생활상 자기관리가 가능하고 자립 생활을 원하는 88명의 입주자가 세이프티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그림11의 세이프티 아파트는 단독형과 공동생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공동생활형은 원래 기숙사였던 시설을 활용하여 자취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퇴원 직후 등의 이유로 식사 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거주 공간, 단독형은 가사가 가능하며



자신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세이프티 아파트는 주 1회 직원들의 순찰, 돌봄과 같은 독자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림11. 세이프티 아파트의 모습(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하지만 세이프티 아파트에는 현재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센다이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에서 임대물건의 공실이 가장 적다. 지진 전에는 건물주의 선의로 매우 좋은 조건으로 건물을 빌릴 수 있었지만 현재 집값 폭등 및 조건이 어려워지면서 물건 확보가 현저히 힘들어진 상태이다. 지진의 흔적이 복원되어가는 시점에서 물건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한 가지 과제다. 또 한 가지는 입주자의 보증에 대해 금전 면에서의 보증인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만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는 등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동의서 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응급시의 법적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대처 방법 연구가 그들의 또 다른 과제이다.

라. 한국 민달팽이유니온의 달팽이집 임대 사업

한국 사회에서 1인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급격히 떨어진 반면, 청년층의 주거빈곤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법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주거빈곤율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 연대로, 2010년 학생들의 운동으로 시작해 2011년부터 시민단체로 조직하였고, 2014년에는 민달팽이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당장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청년 대상 주택공급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 공급한 주택 ‘달팽이집’ 1호와 2호가 5세대(17명)를 수용하고 있으며, 모두 주변 시세의 50~60%의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림12. 민달팽이 기금 기획(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달팽이집 1호는 4천 8백만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18평의 작은 다세대 주택 두 채를 빌려 재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1호를 시작으로 주택공급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호는 민관협업으로 5년 동안 목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하여, 서울시에서 저리로 빌린 5억 원과 1억 8천만 원의 기금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림13. 달팽이 집 생활 모습(주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협동조합은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권지웅 이사장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의 노력으로 접근이 가능했다며 주거문제의 해결에는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 관 협력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거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이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거는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문제가 심화되었다. 빈민, 철거민,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주거문제는 지역 배경과 맞물려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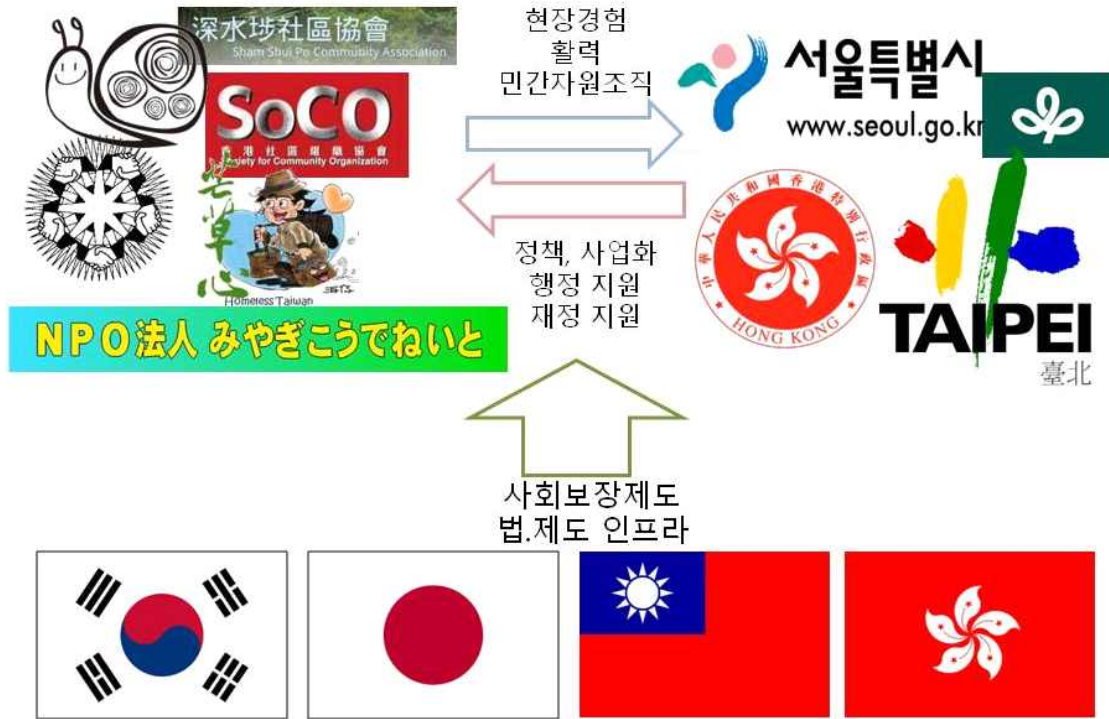
그간 당사자와 민간 활동가들이 함께 조직한 NGO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모색한 후,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문제해결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간의 활동이 단순히 지엽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지원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요구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주거문제가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민간 주체의 노력만으로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저성장, 사회 양극화, 실업, 도시 슬럼화와 같은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상대적으로 빈약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주거문제에 당면한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NGO에서 재정과 활동가의 지속적인 수급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주체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몇몇 문제에 대해 해결을 위한 좋은 사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제하고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민간의 사례를 통한 공공의 개입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공공부문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정책을 주요한 시책으로 선정했으며, 민간의 다양한 주택과 함께 대안적인 사회주택 공급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대만의 타이페이시에서는 서울시와 정책 교류를 통해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국가 예산 100조엔 중 약 30조 엔을 사회복지영역에 투입하고 있다.



그림14.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모델



거시적인 면에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국적인 주거계획의 수립과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시장에 대한 적절한 조정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역량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주거정책의 모든 면을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가?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민간NGO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화된 주거문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고, 민간의 새로운 시도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사회주택에 대한 의제 역시 민간에 의해 주도되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의 협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활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과 제도가 적절히 조화되는 민관협업의 모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6월 8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